제13강 호메로스의 『일리아드』Ⅱ- 영웅 아킬레우스

(1교시)

◆ 『일리아드』

1권 1줄이 24권 전체를 요약
→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모든 그리스 작가들은 첫줄에 모두
'노래하소서, 여신이여'를 넣었다.
→ 일종의 기도문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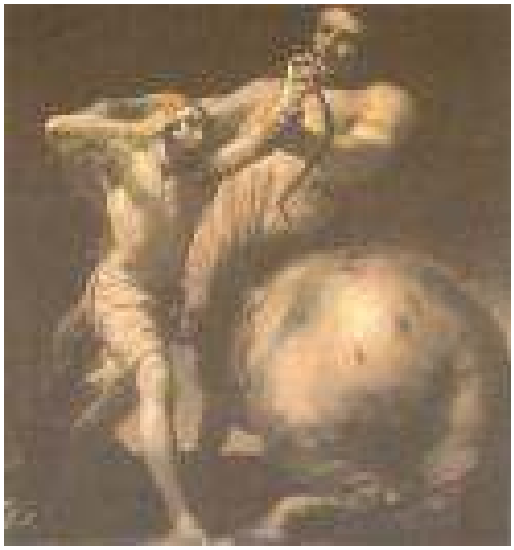
전개 : 「일리아드」의 주 내용
■이야기의 시작 -9년간 전쟁이 계속 되던 중,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Agamemnon과 Achilleus 사이에 불화가 발생 ■ 「일리아스」를 끌어가고 있는 Keyword → 분노

테티스 여신의 외아들 - 발빠른, 사람잡는,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

▶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에 담그는 테티스 여신
아킬레우스는 신탁에 의해,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이기도 했지만,

www.artnstudy.com

태어나자마자 **스틱스** 강물에 몸이 담겨지면서,
강물이 닿지 않은 발뒷꿈치를 제외한 온몸에 불사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결국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됨)



▶ 케이론의 교육을 받는 아킬레우스

▷ 케이론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스승이기도 함.

아킬레우스는 케이론에게
영웅이 가져야 하는 모든 조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수사술, 통치력, 윤리적 교육, 정치적 교육을 배웠다.

▲ 아킬레우스와 호메로스에 대한 오해

아킬레우스를 피냄새에 굶주린 전쟁광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오뒤세우스와 대비시키기 위해 아킬레우스를 왜곡 시켰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이다.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에 나오는 언어가 상이하여
호메로스 작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일리아스와
오딧세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오딧세이를 씀으로,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그리고자 했을 것이다.

(2교시)

www.artnstud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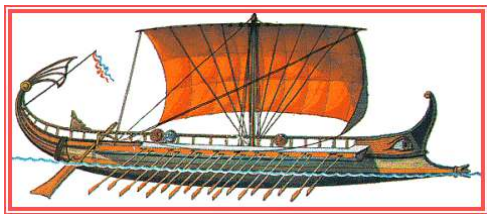
▲ 아킬레우스의 트로이아 참전

아킬레우스에게 내려진 신탁
→ 트로이아에 가면, 짧지만 명예롭게 살 것이고,
가지 않으면, 길지만 명예롭지 않게 살 것이다.
→ 트로이아 함락을 앞에 두고 죽을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테티스 여신의 방해를 받았으나,
아킬레우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명예롭게 살기 위해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다.

▶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는 아킬레우스

▶ **아가멤논**이 출전을 앞두고 사냥터에 가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슴을 잡는다.
'아르테미스 여신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냥감을 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경을 저지름.
역풍이 불어 아울리스에서 배를 띄울 수 없자,
예언자 **칼카스**는 아가멤논 때문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노해서 역풍이 분다고 하며,
노여움을 가라앉힐 신탁을 전한다.
아가멤논의 맏딸 이피게네이아가 태어난 해의 수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쳐야한다.
결국 아가멤논은, 이피게네이아를 아킬레우스와 약혼시킨다고
부인 클뤼타임네스트라를 속이고 맏딸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
이를 딱하게 여긴 아르테미스는,
이피게네이아를 신전의 여사제로 삼는 것을 전제로 살려준다.



▶ 그리스 배

▶ 아가멤논을 말리는 클뤼타임네스트라와 엘렉트라

www.artnstudy.com

▶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려는 아가멤논

▷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클뤼타임네스트라와 그의 정부 아이기스투스는
전장에서 돌아온 아가멤논을 죽임.
아버지를 그리워 한 아가멤논의 둘째딸 엘렉트라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함.
(**엘렉트라 콤플렉스**)

▲ 아킬레우스의 분노

9년 동안 트로이아 성을 허물지 못하고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던 중,

www.artnstudy.com

그리스 연합군에 전염병이 돈다.
예언자 칼카스에 의하면, 아가멤논이 크뤼세이아를 전리품으로 취했기 때문.

▷ 전리품 (금은 보석, 세발 달린 가마솥, 사랑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여인)

크뤼세이아는 아폴론 신전의 사제인 크뤼세스의 딸.
크뤼세스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전하며 아가멤논에게 딸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지만,
아가멤논은 거절한다.
크뤼세스는, ' 제가 사제로서 일을 온전하게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대신하여
그리스연합군을 벌하여 주소서.' 라고 아폴론에게 기도한다.
이에 **아폴론**은 자신의 은궁을 쏘아서 그리스 연합군 사이에 전염병이 돌게 한다.

아킬레우스의 충고 대로 많은 몸값을 덧붙여서 크뤼세이아를 돌려준 아가멤논은
대신 아킬레우스의 여인인 브리세이스를 대신 데려간다.

▶ 아킬레스와 브리세이스

명예가 손상된 아킬레우스는, **이 순간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짧지만 명예롭기 위해 스스로 참전한 전쟁에서,
명예가 총사령관에 의해 손상된 아킬레우스에게 전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

전리품 = 승리의 대가 , 명예의 상징.
명예의 손상 → **분노**

www.artnstudy.com